

漁港환경整備計劃추진

案内板·進入路標識 등 설치

每月15日엔 어항大清掃

수산청이 어항안내판 및 진입로표지판설치와 어항구역내 환경정화등 어항환경정비계획을 수립, 노후표지판 실시키로 했다.

수산청의 따르면 어항 환경정비를 위해 오는 7월부터 92년12월까지 전 국제 1·3종어항 83개소에 9천9백60만원의 예산으로 어항안내판을 그리고 제1종어항 50개소에 3천2백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실정에

小黒山島어항建設工事評價

構造物安全性도

수산청은 소흑산도어항 건설공사평가 결과를 향후 정책결정의 반영키로 하고 지난 5월13일부터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했다. 수산청차장을 단장으로 9명의 평가단으로 구성

했으며 시설과장에게 5명 평가단으로 파견, 본 어항 개발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과 구조물의 안전성 등 기술적인 부분과 개발의 타당성 및 주민의 편의를 평가했다.

평가단의 따르면 소흑산도의 어항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절벽고도도로 수심 30m이상, 연간차일수 114일이내의 시공난항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동해안해출어선의 진출과 대파와 중진보담기 지, 동국과의 관계개선 및 주민의 숙원사업인 어항, 현 기본계획대로 투자를 계속해서 조기완공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됐다.

漁港會館 建立基金을募金합니다

우선회의를 정성투터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편 어항회장이 어항건설 기금을 모으기 전부터 이미 많은 부분을 헌신하여 어항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기탁해 주시고, 특히 본회 발간지인 「어항」의 「어항소식」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산청 어항이면 점선외 7개도를 대상으로 91년 5월 13일부터 91년 11월 30일까지 11월 30일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심사: 심사위원은 사계 권위자로 구성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 가작 5점을 선정

② 발표: 12월 어항소식 및 어항지적물호에 발표

■ 상품

- 금상: 상패, 20만원
- 은상: 상패, 15만원
- 동상: 상패, 10만원
- 가작: 상패

■ 시상: 91년 12월 중 (별도 개별통지)

■ 기타: 출품작품은 본회의 귀속, 어항지, 어항소식에 게재

■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장단구 남원동 98번지,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 135-010

많은 應募바랍니다

第4回 漁港寫眞公募

사자 및 수산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어항 사진공모전이 어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어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어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1. 대상: 어항에 거주하는 어민, 어항근로자, 어항을 방문한 관광객 등

2. 주제: 어항의 아름다움, 어항의 발전, 어항의 환경정화 등

3. 기종: 4x5이상 8x10 이하, 흑백, 컬러

4. 접수기간: 91년 5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5. 접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港灣시설建設民間참여促進 無償사용期間延長 등 投資기피에 積極對處

정부는 항만시설건설에 민간참여를 촉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항만시설을 건설한 뒤 무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투자비가 보전될 때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민간기업 투자유인을 위한 대책이다.

한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만법시행령개정안의 따르면 부산·인천항등과 전남·목포·여수등의 항만시설은 수익성이 크거나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데도 무상사용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을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항만시설사용료에 타인사용료를 합친 수입총액의 50%에 이를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도록 했다.

또 총사업비의 범위도 조사의, 설계비, 공사비, 보상의 부담비 투자보수비 등 6개항목으로 정해 그동안 제외됐던 조사의와 투자보수비를 투자비용에 추가키로 했다.

東京・東海어항大會 關東・東海어항大會

동경도어항협회 주최 제 34회 關東・東海지구어항대회가 지난 6월 10일 東京・八丈島에서 개최됐다. 1부6縣의 어항관계자 7백여명이 참석하여 대회는 제8차어항정비계획의 기간내 완성실시와 관련

△제8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진과 92년도에 산의 증액확보 △漁業集落 환경정비사업과 어항 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 및 예산의 확보 △단계어항의 조기정비추진 △단계 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완성실시와 92년도에 산의 증액확보

△제8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추진과 92년도에 산의 증액확보 △漁業集落 환경정비사업과 어항 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 및 예산의 확보 △단계어항의 조기정비추진 △단계 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완성실시와 92년도에 산의 증액확보

信賴받는 檢査業務 確行

- 檢査判定의 標準化
- 檢査員의 資質向上
- 檢査의 科學化
- 製品生産의 指導強化
- 輸入水産物檢査의 早期定着化

國立水産物檢査所

所長 李芝淵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TEL: 762-9211~4, FAX: 765-1755.

어·항·교·실

漁港計劃樹立의要領

[25]

臨港道路

~0.60, 임항도로규모의 결정에는 ③,④식으로 구한 피크시간교통량을 적용한다.

나. 피크시간교통량(대/시)

① 지구의 피크시간교통량 M_1 (대/시), $M_1 = M_1 \times r \dots$ ③

② 지구내 피크시간교통량 M_2 (대/시), $M_2 = M_2 \times r \dots$ ④

단, r는 집중률(무차원)로서 출하시간대 전의 발생교통량과 제일 많은 차량이 집중하는 시간의 발생교통량과의 비로 표시, 조사해서 정한다. (시간교통량)

예를들면 출하시간대가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의 5시간인 경우 발생하는 전 교통량이 400대이고 7시부터 8시까지의 1시간에 집중하는 교통량을 210대라고하면 집중률 r은 $0.525(210 \div 400)$ 가 된다.

그러나 출하시간이 극히 짧은 경우는 ①,②식으로 구한 발생교통량을 가지고 임항도로의 규모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4. 방향별 발생교통량

발생교통량이 산정되면 다음에 그 발생교통량을 근거로 어항지구내의 방향별(어항지구외에 있어서는 소비권별, 또 지구내에 있어서는 냉동고, 가공장 등 주요시설)별 교통량을 추정한다. 이는 전 3항에서 이미 산정한 발생교통량을 방향별로 나누는 것이 좋으며 나누는데 있어서는 발생교통량의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N_1 \dots$ ②

F_1 : 지구의 트럭분반출량(톤/1일최대양륙시)

F_2 : 지구의 보냉차분반출량(톤/1일최대양륙시)

F_3 : 지구내 트럭분 이동량(톤/1일최대양륙시) 출하장에서 지구내 가공장, 냉동고 등으로 운반되는 량.

F_4 : 지구내 보냉차분 이동량(톤/1일최대양륙시) 출하장에서 지구내 가공장, 냉동고 등으로 운반되는 량.

T_1 : 지구의 트럭적재톤수(톤/대)

T_2 : 지구의 보냉차적재톤수(톤/대)

T_3 : 지구내 보냉차적재톤수(톤/대)

T_4 : 지구내 보냉차적재톤수(톤/대)

M_1' : 자가용차, 기타의 차량수(대/1일최대양륙시)

M_2' : 지구내 이동에 수반한 교통량(대/1일최대양륙시)

N_1, N_2, N_3, N_4 : 할증계수(무차원) = 순어획물적재톤수/차량적재량(적재톤수) = 차량적재량(적재톤수) / 차량적재량(적재톤수) 단, 할증계수는 어종, 출하방법(어상자, 바구니, 기타) 및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나가사키(長崎)어항의 경우를 예로들면 다음과 같다.

10톤보냉트럭에 의한 어상자출하의 경우 $N_2 = 0.82$, 10톤냉장컨테이너에 의한 어상자출하의 경우 $N_2 = 0.50$

3. 발생교통량의 예측
어획물수송량을 위하여 어항구역내에 출입하는 차량은 어획물의 양, 출하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집중된다.

그러므로 먼저 성어기에 있어서의 표준일에 발생하는 교통량을 예측한다. (단, 하루에 수회씩 출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중 양륙량이 최대일 때의 교통량을 예측하는 것이 좋다.)

또 임항도로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피크시간의 교통량이 적용되므로, 피크시간당의 발생교통량을 예측한다.

가. 발생교통량(대/1일 최대양륙시)

먼저 양륙량을 어항지구외로 반출될 것과 지구내에서 이동될 것으로 분류한후 각각의 양륙량에 대응하는 그마다의 발생교통량(양륙장/적재톤수 \times 할증률)을 산정한다.

① 양륙량 $C = A + B$ (톤/1일 최대 양륙시)

② 지구외 반출량 $A = F_1 + F_2$ (톤/1일 최대 양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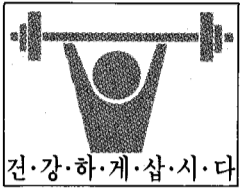
③ 지구내 이동량 $B = F_3 + F_4$ (톤/1일 최대 양륙시)

④ 지구의 발생교통량 M_1 (대/1일 최대 양륙시) $M_1 = F_1 / (T_1 \times N_1) + F_2 / (T_2 \times N_2) + M_1' \dots$ ①

⑤ 지구내 발생교통량 $M_2 = M_1 + M_2'$ (대/1일 최대양륙시) $M_2 = F_3 / (T_3 \times N_3) + F_4 / (T_4 \times$

문 · 어

神經계통병에 좋아



다. 사. 삼. 계. 하. 강. 전

가라사대 「우리 비록 몸이 작고 하잘것없는 집안이지만은 빠대있는 집안에서 고이 자란 내발인데 빠대없는 당신 집안으로 어떻게 시집보낼 수 있느냐. 나는 이리도 싫은 혼사이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

한편 이런 뜻하지도 않은 모욕과 봉변을 당하고 되돌아서 는 문어의 가슴 한쪽에서 자기도 모르게 피멍이 들고 말았다. 그러나 후세사람들은 신경성 심장 쇠약증에 문어의 평등 그 부분을 약으로 먹고 고어혈성 동물(瘀血性 疼痛) 부딪쳐서 살속에 맺혀 생기는 통증(타박상)에도 문어를 사 용하여 왔었다.



또한 한방에서는 간이 나쁜 면 동물의 간을, 심장이 약하면 동물의 심장을 약으로 사용 하여 왔다. 그리고 팔이나 고약의 다리뼈를 먹었고 수중에서는 문어를 사용하여 왔음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더욱이 남자의 양위현상, 여자의 자궁발육부전(子宮發育不全)이나 불임증·불감증(不感症)에는 이 문어가 특효약으로 한방고서에 기록해 두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어는 천기증을 없애주며 조혈(調血)해 줄 수 있는 약효가 있다고 하였다.

시민 정신과 고발 정신
백주대로 흉악범들이 날뛰어도 신고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회풍조가 더욱 범죄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흉기를 든 범죄자에게 대항하다가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해도 보상해주는 제도 조차 없었다.

시민들은 어느새 고발정신이나 구조정신이 마비된 채 자신의 안전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력 만으로 도처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체포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고발정신과 사회정의에 입각한 용감한 구조정신이 발휘될 때 흉악범들도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며 범죄도 꼬리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에게 지금까지의 관행적 벌칙이나 법의 형평주의에 입각한 형량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판단 아래 중형주의로 나갈 것도 밝혀 놓고 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가망이 없는 전과자들에게는 사회로부터 격리를

不法과 不義 모른채하면 禍根 나에게

준법정신 · 秩序의식 몸에 익혀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야 한다. 그리고 살신성인의 시민정신과 고발정신으로 범죄와의 전쟁에 몸을 던져야 한다. 작은 것이 라도 불법은 용서치 않

불같은 정의감에 두 주먹을 불끈 쥐어야 한다.

선부른 인정과 약한 마음 때문에 눈앞에 둔 불법과 불의를 모른 채 한다면 그 화근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이치를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대문을 열어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날을, 밤거리를 두

려움 없이 걷는 사회를 맞이해야 한다.

90년대를 행복이 가득한 연대로

민주주의가 지방자치제도로 정착되고 경제가 분배경제로 돌아서고 행정이 민간에게로 이양되면 정부가 할

마당을 이루고 사상최대의 제전이 되었다는 데서 얻는 자만심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시아의 작은 분단국가 5천년의 장엄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음을 보여 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땅을 흘리고 지혜를 모아 전쟁의

갯더미위에서 오늘의 경제부흥을 이룩했는가를 보여 주었다.

경제와 더불어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한 것 또한 보여 주었다.

세계는 우리를 친절, 질서, 청결의 수준 높은 문화시민 이라고 높이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그때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 지금 우리는 과연 선진국으로 가는 "문화시민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질서의식과 준법정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은 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소득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준법정신과 질서의식인 것이다. 서울 올림픽에서 전세계에 보여 주었던 주인정신과 질서의식을 다시 한번 생활속으로 깊이 끌어들이야 한다. 그 길만이 선진 문화국민으로 올라서는 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정서를 키워나가야겠다. 오늘의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도 올바른 국민정서가 체질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나서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우리 사회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간다면 우리의 90년대는 행복이 가득한 연대가 될 것이며 선진국으로의 진입과 국민의 여망인 통일도 함께 맞이하게 될 것이다.

國民情緒를 體質化해야

수 있는 선진사회의 진입은 무난히 이루어지는 셈이다.

우리가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어깨를 우뚝 내는 것도 종합성적 4위를 했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구에서 마지막 남은 분단의 나라에서 동서가 한데 어우러져서 화해의

새秩序 · 新生活

새秩序 · 新生活